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23일(일) 총 6매	
담당 부서 공보담당관실	담 당 자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에는 박물관으로**  
**- 인천지하철 1호선 타고 박물관 여행 -**  
**- 다양한 박물관 기획전 눈길 ... 역사 곳곳서 버스킹 공연도 -**

여름 방학에는 박물관이 답!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타고 떠나는 박물관 투어를 제안한다.

계절적 특성상 물놀이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이지만 더위를 피해 아이들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박물관이다.

도심 속에 위치한 박물관들은 너무 멀지 않고 시원한 지하철을 이용해 쉽게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학맞이 다양한 기획전 및 체험전을 마련하고 있어 더위를 잊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가 제안하는 박물관은 모두 인천지하철을 1호선을 이용해 닿을 수 있다. 인천지하철을 1호선은 공항철도와 경인선, 수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결돼 있어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1999년 10월 박촌역~동막역 구간의 21개 역으로 개통한 인천지하철 1호선은 현재 30개 역으로 늘려 운행 중이며 2025년에는 서구 검단신도시 방면 3개 역을 추가로 개통할 예정이다.

8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부평시장과 부평구청(7월 26일, 8월 2일)·굴포천역(8월 2, 23일)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수송 인원 20억 명 돌파 기념 버스킹 공연도 진행되니 공연 스케줄을 고려해 박물관 나들이 일정을 짜도 좋겠다.

버스킹 공연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며 인천음악창작소 인천지역 활동 뮤지션이 역사 특성에 맞는 재즈·팝·요들·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①인천어린이과학관([www.insiseol.or.kr](http://www.insiseol.or.kr)) @박촌역 도보 10분

국내 최초 어린이 전문 과학관으로 오감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연령 발달을 고려한 체험 전시관은 권장 연령을 확인해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아나운서, 요리사, 소방관, 건축사 등 직업 체험까지 해볼 수 있다. 과학관은 상설전시관의 인기가 워낙 높아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회차별 이용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제한한다. 7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기획전시 ‘짜이팝’에서는 빛, 소리, 자기, 진동 등 어려운 과학 원리를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②계양산성박물관([muweum.gyeyang.go.kr](http://muweum.gyeyang.go.kr)) @계산역 도보 8분

전국 최초의 산성 전문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성 발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성곽은 쌓아서 만들어진 방어시설로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성곽 대부분이 산성이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우리나라

의 산성 발달사를 영상과 모형자료를 통해 배워볼 수 있으며 계양산성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처럼 강인하게 이어져 온 ‘돌’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겨볼 수 있는 특별전시 ‘돌, 삶을 쌓다’는 9월 3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③검단선사박물관([www.incheon.go.kr/museum](http://www.incheon.go.kr/museum))

@계양역 또는 계산역→30번, 841번 버스 환승→원당사거리 하차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특별전 ‘흙과 불의 조화, 토기-천년도시 인천 검단의 토기’가 개최된다. 인간의 생활과 떼어 수 없는 생활필수품 토기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검단지역은 우리나라 중서부 최대 규모의 주거지가 확인된 한강 하류의 중심 지역이었고, 삼국 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이번 토기 특별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인천시립박물관([www.incheon.go.kr/museum](http://www.incheon.go.kr/museum))

@동막역→시내버스 8번→송도유원지 하차  
국내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특별전시 ‘피고 지고 ... 그리고 화수·화평동’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을 앞둔 인천 원도심 화수동과 화평동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립박물관과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1년을 함께 준비했다. 사라져가는 과거의 기록을 찾아 그곳에 살았던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와 화수·화평동의 풍경을 전시로 엮었으며 특히 인천에서 나고 자란 양진채 소설가의 글로 전시를 풀어내 동네 속 삶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7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슨트를 운영하며 참여자에게는 기획특별전 도록과 기념품도 제공한다.

⑤인천도시역사관([www.incheon.go.kr/museum](http://www.incheon.go.kr/museum)) @센트럴파크역 도보 8분  
1883년 개항 이후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천을 보여주는 곳이다. 인천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부터 화폐, 지형도까지 도시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1층에 마련된 모형관에는 인천우체국, 조선은행, 인천공회당 등 인천의 옛 건물을 축소해 사실적으로 만들어 놓아 관람의 재미를 높여준다. 어른에게는 옛 동네에 대한 추억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살고있는 도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⑥국립세계문자박물관(<https://www.mow.or.kr>)@센트럴파크역 도보 8분  
국립세계박물관은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지난 6월 29일 인천에 문을 연 문자 전문 박물관이다. 상설전시에서는 인류 최초의 문자 쉐기문자부터 세계 대부분 문자에 영향을 준 이집트문자, 현재까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인 한자, 가장 잘 만들어진 문자로 알려진 한글에 이르기까지 문자 55종의 다양한 유물과 디지털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다.

개관기념으로 마련한 특별전시 ‘긴 글 주의-문자의 미래는?’에서는 긴 글을 기피하고 그림·영상 등 비문자적 소통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진 현상을 돌아보고 문자의 고유한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붙임> 관련 이미지

붙임

관련이미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시>



<어린이과학관 뉴인체미로>

